

## HEADLINE NEWS

### 세금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에 「세금징수권」 판매 (뉴욕)

미국 뉴욕시는 현재 재산세, 토지세, 상·하수도 요금 등 시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수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그 세금을 징수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세금징수권 판매(Tax Liens Sal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세금체납이 적어도 1년 이상 경과하게 되면 신문이나 시 홍보지를 통해 세금징수권 판매를 공고하는 한편, 세금체납자에게는 세금징수권을 판매하기 30일 전에 이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알린다. 또한 시는 판매한 후 90일 이내에 세금체납자에게 세금징수권이 판매된 사실과 매입자 신원, 세금징수권 내용 등을 통보한다. 한편, 세금징수권을 매입한 민간인은 체납세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관련법규에 의해 인정된 경비 일체를 징수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www.nyc.gov/html/dof/html/liensale2.html](http://www.nyc.gov/html/dof/html/liensale2.html))

## HIGHLIGHTS

### 도시관리

- ① 세금인상·재정부담 없는 도시정비 추진 (시카고)
- ② 도시의 서비스·기반시설 수준을 측정하는 도시발전지수」 개발 (유엔)
- ③ 자동차무역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국제적인 「모터 시티」 조성 (상해)

### 도시환경

- ④ 환경친화형 차량에 면세혜택 제공 (싱가포르)
- ⑤ '녹색주거단지' 조성 위해 표준 견본주택 건설 (시카고)
- ⑥ 천연가스와 태양열 에너지로 전력 생산·공급 추진 (뉴욕)

### 도시교통

- ⑦ 교통신호를 자동조정하는 「버스우선시스템」 도입 (교토)
- ⑧ 교통사고장면 자동촬영하는 비디오카메라 설치 (일본 : 사이타마縣)
- ⑨ 都營 지하철-영단(營團) 통합 및 민영화 추진 (동경)

### 행정

- ⑩ 자원봉사자 모집해 불법광고물 제거 (키타큐슈시)
- ⑪ 공공사업 효율성·투명성 제고 위해 매년 사업재평가 실시 (교토)

### 사회복지

- ⑫ 여름방학 중 청소년고용 프로그램 시행 (뉴욕)
- ⑬ 음식점·술집 대상 「호객행위 규제조례」 제정 (동경)



### 1] 세금인상·재정부담 없는 도시정비 추진 (시카고)

미국 시카고市는 「TIF(Tax Increment Financing)」라는 재정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 기법은 낙후된 지역이나 방치된 토지를 정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기채(起債)를 통해 조달하고, 그 비용을 정비 후 증가하게 되는 지방세 수입으로 장기간에 걸쳐 총당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세금인상이나 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도시를 정비하는 장점이 있다.

市는 현재 105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 방식을 통해 지역을 정비해오고 있다. 市는 이를 통해 낙후되고 저이용되어 지방세 수입도 미미한 토지를 정비함으로써 지역도 정비하고 지방세 수입도 증대하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www.cityofchicago.org/PlanAndDevelop/Programs/TaxIncrementFinancing.html](http://www.cityofchicago.org/PlanAndDevelop/Programs/TaxIncrementFinancing.html))

### 2] 도시의 서비스·기반시설 수준을 측정하는 「도시발전지수」 개발 (유엔)

유엔 인간정주(定住)센터는 도시의 발전수준, 생활가능성, 지속가능성, 빈곤, 혼잡도 등을 토대로 해 「도시발전지수」를 개발, '세계도시상황 - 2001 보고서'를 통해 공개했다. 이 지수는 구체적으로 사회기반시설, 쓰레기처리, 보건, 교육, 도시생산력 등 5개 부문의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1998년도 자료로 계산한 세계 152개 도시의 「도시발전지수」를 보면, 서울은 86점으로 스톡홀름, 멜버른, 싱가포르, 홍콩, 모스크바 다음이었다.

한편, 이 센터 홈페이지에 소개된 2001년도 수정지수를 보면, 서울은 95.78점으로 스톡홀름, 멜버른 다음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도시생산력과 교육 부문에서 향상된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물가를 고려한 총지출지표로서, 인적·물적 도시서비스와 사회기반시설을 측정하는 「도시발전지수」는 통계학적으로 신뢰도가 매우 높아 유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www.unchs.org/Istanbul+5/br.htm](http://www.unchs.org/Istanbul+5/br.htm), [www.unchs.org/Istanbul+5/statereport.htm](http://www.unchs.org/Istanbul+5/statereport.htm))

### 3] 자동차무역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국제적인 「모터 시티」 조성 (상해)

중국 상해(上海)시는 지난 5월 13일 자동차와 관련한 무역, 전람(展覽), 연구개발, 물류, 관광, 서비스 등 6개 기능을 집중시킨 국제적인 「모터 시티」를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년) 기간 내에 市 교외의 安亭지구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모터 시티」가 완성되면 상해市는 중국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동차 무역의 중심적인 거래센터 및 집산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모터 시티」 조성 계획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두고 상해市가 세계 자동차 무역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市는 무역에 유리한 지리적 여건, 자동차관련 생산, 시장상황, 금융, 서비스 등 市가 가진 장점을 살려 중국 안팎의 유명 자동차제조업체를 유치하고, 세계 우수 자동차 신제품의 전시나 자동차 전반에 관한 전시 및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자동차 제조기술이나 문화를 보급할 예정이다. 市는 5년 후 「모터 시티」 조성을 목표로, 향후 2~3년간은 자동차관련업체를 유치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人民日報, 5. 14)

### 4] 환경친화형 차량에 면세혜택 제공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조만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환경친화형 차량에 대해 세금면제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싱가포르 교통정보기술부 장관은 지난 5월 30일 열린 교통관련 국제회의에서 연료전지차량을 비롯한 환경친화형 차량을 대상으로 일반 차량에 부과되는 통상적인 세금 일체를 감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제조업체와 관련 연구소, 연료관련업체 등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싱가포르를 환경친화형 차량의 '실험장소'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이에 따라 이 계획을 뒷받침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ng.kcci.or.kr/env)

### 5 '녹색주거단지' 조성 위해 표준 견본주택 건설 (시카고)

미국 시카고市 의회는 최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에너지의 소비 효율성이 뛰어난 '녹색주거단지'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市는 금년에는 市 소유 나대지에 총 5채의 '녹색주택'을 조성하고, 이후 녹색주택 개념을 확장해 지역사회 개발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市는 조만간 5채의 녹색 표준주택을 시민에게 매각할 예정이며, 이 매각대금을 활용하여 또 다른 녹색주택을 건설·매각하는 재투자 개념의 실험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녹색주거를 표방하는 표준 녹색주택 건설은 향후 주거지역 개발 및 건축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형 기술 개발이라는 부수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w4.ci.chi.il.us/Mayor/2001Press/news\\_press\\_greenhomes2.html](http://w4.ci.chi.il.us/Mayor/2001Press/news_press_greenhomes2.html))

### 6 천연가스인 태양열 에너지로 전력 생산·공급 추진 (뉴욕)

미국 뉴욕市の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는 에너지공급업체인 '1st Rochdale'과 함께 환경친화형 도시 건설 개념을 도입한 「Green Apple」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市の 애칭인 'Big Apple'에서 이름을 따온 이 프로그램은 뉴욕 전체인구 중 160만 명이 거주하는 co-op(협동조합)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천연가스와 태양열 에너지로 아파트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한다는 데 있다.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모터를 가동, 전력을 생산하고 이 때 발생하는 잔류열은 난방과 온수에 사용할 계획이다.

市는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 설치를 위해 장기 계획인 「10-10-10 Plan」을 부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10년 이내에 전체 10%의 co-op(협동조합) 건물 옥상에 10킬로와트의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보다 저렴한 에너지를 보급하고, 대기오염문제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www.ems.org/lighten\\_the\\_load/docs/ny\\_green\\_apple.html](http://www.ems.org/lighten_the_load/docs/ny_green_apple.html))

### 7] 교통신호를 자동조정하는 「버스우선시스템」 도입 (교토)

일본 교토(京都)시는 버스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교통신호를 자동 조정하는 「버스우선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송신기를 탑재한 버스가 가로에 설치한 수신지점을 통과하면, 수신지점에서는 이 정보를 교통관제센터에 송신하게 되고, 이 센터에서는 다음 신호에 접어들 시간을 예측한다. 이에 기초해 버스가 교차점에 가까워지면 교통신호를 녹색으로 바꾸거나 녹색신호를 연장해 버스가 가능한 한 교차점을 통과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이 시스템을 210대의 버스에 도입, 32군데의 교차점에서 교통신호를 조정하고 있다. 현재 총 6.5km의 대상구간에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버스통행 소요시간이 평균 2분 53초가 단축되었으며, 최대 단축시간은 4분 42초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 6. 22)

### 8] 교통사고장면 자동촬영하는 비디오카메라 설치 (일본 : 사이타마縣)

일본 사이타마(埼玉)현은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충돌음을 감지할 수 있는 음향센서를 부착한 비디오 카메라를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주요 교차로 20곳에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 「교통사고 자동촬영장치」는 음향센서가 충돌음을 감지하면 화상메모리를 내장한 비디오 카메라가 사고전후 약 8초간의 영상을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한다. 縣 교통당국은 이 화상메모리에는 교통사고 영상 이외에는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사히신문, 4. 6)

### 9] 都營 지하철 - 영단(營團) 통합 및 민영화 추진 (동경)

일본 東京都의 외부감사팀은 도영(都營) 지하철과 영단(營團) 지하철의 경영통합을 都에 제안했다. 도영(都營) 지하철의 누적적자는 '99년 현재 4,900억엔인 반면, 제3섹터인 영단(營團)은 흑자경영을 기록하고 있으며, 장차 민영화할 계획이다. 東京都 知事도 영단(營團) 민영화시에 양 지하철을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日本經濟新聞, 2. 10)

### ⑧ 자원봉사자 모집해 불법광고물 제거 (키타큐슈市)

일본 후쿠오카(福岡)현 키타큐슈(北九州)시는 전주(電柱), 도로표지판, 가로등, 가로수, 육교, 교통신호제어기 함, 공중전화부스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자원봉사자가 제거할 수 있도록 「제거협력원제도」를 시행한다. 지난 6월부터 자원봉사자인 「협력원(協力員)」들이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민간 시설물에 부착된 광고물은 제거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시가 인정하는 「협력단체」자격요건은 10명 이상의 시민단체 및 기업체 등이며, 「협력원」은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市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18세 이상의 희망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게 된다. 「협력원」은 무보수이지만, 주걱, 펜치, 장갑 등의 제거도구는 市가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고 본인이 희망하면 자원봉사를 계속 할 수 있다. 불법광고물 제거에는 「행정불복심사법」이 적용되지 않아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사람은 市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현재 일본에서는 키타큐슈市를 비롯, 7개 市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아사히신문, 4. 7)

### ⑧ 공공사업 효율성투명성 제고 위해 매년 사업재평가 실시 (교토)

일본 교토부(京都府)는 공공사업의 효율성과 시행과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사업 재평가 시스템」을 지난 '98년 12월 도입,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교토府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중에서 장기간을 경과한 사업에 대해 재검토 등의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제 재평가는 사업 진척 및 사회경제적 상황, 비용 대 효과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의 변화를 기초로 실시된다. 아울러 재평가 실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학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사업 재평가 심사위원회」를 설치했다.

([www.pref.kyoto.jp/shido/saihyoka/index.htm](http://www.pref.kyoto.jp/shido/saihyoka/index.htm))

### 여름방학 중 청소년고용 프로그램 시행 (뉴욕)

미국 뉴욕시는 매년 여름방학 기간 중에 학생들이 시 공공기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하계 청소년고용 프로그램(Summer Youth Employment Program)」은 청소년들에게 직장생활을 실제로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6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고용된 청소년들은 공공기관, 박물관, 비영리단체, 병원, 문화센터, 도서관, 공원 등 약 2,500개 기관에서 하루 6시간씩 주 4일간 일하며, 시간당 5.15달러를 받는다.

이 고용프로그램의 지원자격은 시에 거주하는 14세에서 21세 사이의 청소년으로서, 가족 전체의 소득이 시가 정한 상한선 이하여야 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4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여름방학 중에 사회경험을 쌓았으며, 금년에도 지원자가 이미 6만3천명이 넘었다.

([www.nyc.gov/html/om/html/2001a/pr194-01.html](http://www.nyc.gov/html/om/html/2001a/pr194-01.html))

### 음식점·술집 대상 「호객행위 규제조례」 제정 (동경)

일본 東京都는 음식점, 술집 등의 호객행위나 부당요금 징수를 규제하는 「호객행위 규제조례」를 지난해 12월 제정했다. 이 조례는 '성풍속 영업'을 부당하게 권유하거나 호객행위를 한 업주 및 이와 관련해 자금 및 장소를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실제 요금보다 싼 요금으로 오인시켜 권유하는 행위, 난폭한 언동으로 요금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요금 일람표 및 위약금을 점포 내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6. 9)